

전북지역 유람일기의 현황과 활용

김미선*

논문접수일: 2019. 10. 30. 심사개시일: 2019. 11. 10. 게재확정일: 2019. 11. 21.

목 차

- | | |
|----------------------|---------------------|
| 1. 머리말 | 4) 20세기 |
| 2. 전북지역 유람일기의 지역별 분포 | 4. 전북지역 유람일기의 활용 가치 |
| 3. 전북지역 유람일기의 시기별 현황 | 5. 맺음말 |
| 1) 17세기 이전 | 참고문헌 |
| 2) 18세기 | <Abstract> |
| 3) 19세기 | |

국문초록

본 논문에서는 40편의 전북지역 유람일기를 지역별, 시기별로 살펴보고, 그 활용 가치를 정리하였다. 먼저 2장에서는 전북지역 유람일기의 지역별 분포를 정리하였다. 부안이 13편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전주 5편, 고창, 무주, 순창, 정읍 각 3편, 남원, 완주, 임실 각 2편, 군산, 익산, 장수, 진안 각 1편으로 유람일기가 많진 않지만 여러 지역에서 고르게 발견되었다. 유람한 세부 지역을 살펴보면 변산(11편), 덕유산(3편), 만덕산(2편) 등 산을 유람한 것이 가장 많아, 40편의 유람일기 중 24편이 산을 유람한 일을 기록한 것이었다.

3장에서는 전북지역 유람일기의 시기별 현황을 살펴보았다. 전북지역 유람일기는 이규보의 <남행월일기>(1199년-1200년)부터 박인규의 <유황방산기>(1969년)에 이르기까지 약 800년 가까이 작품이 발견되었다. 세기별 수량은 12세기 1편, 16세기 1편, 17세기 2편, 18세기 6편, 19세기 16편, 20세기 14편이다.

유람여행이 성행한 조선후기의 상황 속에서 전북지역 유람일기도 많아졌으며, 한

*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 E-mail: paraoho@hanmail.net, Tel: 062-530-3119

사람이 여러 편의 작품을 남긴 경우도 발견되었다. 18세기 강세황, 김수민, 19세기 이기, 19-20세기 김운덕, 20세기 문창규, 박인규가 각각 2편, 20세기 권순명이 3편, 19세기 송병선이 4편을 남겼다. 또한 작품 수가 늘어난 것에 비례하여 여행지역도 다양화되었으며, 20세기에는 전북의 가장 다양한 지역 유람일기를 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전북지역 유람일기의 활용 가치를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전북학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둘째, 전북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셋째, 전북지역 여행문화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주제어 : 전북지역, 유람일기, 부안, 전주, 변산, 덕유산, 이규보, 송병선, 박인규

1. 머리말

여행은 교통수단이 발달한 현대에도 특별한 경험으로, 사람들은 사진 등으로 자신의 여행을 기록한다. 다른 지역에 가는 것이 쉽지 않았던 과거에 여행, 특히 일을 보기 위해서가 아닌 유람(遊覽)을 위해 여행을 떠난다는 것은 더욱 의미 있는 일이었을 것이다. 선조들은 이러한 유람을 한시, 가사, 일기 등 다양한 글로 남겼다. 그중 비교적 서술이 자유로운 일기 속에는 유람과정의 자세하게 담겨 있고, 유람지역의 역사, 풍경, 당대의 의미 등도 기록 되어 현대에 활용 가치가 높다. 유람일기를 연구함으로써 각 지역의 역사와 문화의 한 단면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전북지역 유람일기는 얼마나 되며, 어떠한 작품들이 있을까?

전북지역 유람일기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 및 연구는 그동안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유람일기는 형식상 일기이며, 내용상 유람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일기와 유기(遊記)에 모두 속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일기나 유기에 대한 종합적 조사에 전북지역 유람일기 작품 일부가 포함된 경우가 있고,¹⁾ 호남지역

1) 황위주, 2007, 『조선시대 일기자료의 현황과 활용방안』, 『국역 조선시대 서원일기』, 한국국학진흥원 ; 최은주, 2009, 『조선 시대 일기 자료의 실상과 가치』, 『대동한문학』 30, 대동한문학회 ; 김미선, 2019, 『조선시대 한문 기행일기의 현황과 가치』, 『한국민족문화』 71, 부산대 민족문화연구소 ; 김미선, 2019, 『조선시대 기행일기 속 여행 목적』, 『국어문학』 71, 국어문학회 ; 정민 편, 1996, 『韓國歷代山水遊記聚編』 1-10, 민창문화사 ; 심경호, 2007, 『산문기행-조선의 선비, 산길을 가다』, 이가서 ; 국립수목원 편, 2016, 『산림역사 자료 연구총서5 충청도, 전라도-산림정책과 산림문화 역사성 규명을 위한 국역 유산기』, 한국학술정보 ; 이상균, 2013, 『朝鮮時代 遊覽文化 研究』, 강원대 박사학위논문 ; 전송열·허경진 편역, 2016, 『조선 선비의 산수기행』, 돌베개 등.

의 일기나 유산기를 연구할 때에도 포함된 경우가 있었다.²⁾ 이러한 경우에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전북지역 유람일기 중 누락된 작품이 많고, 전북지역만의 특징이 파악되지 않았다.

부안의 변산은 경치가 빼어난 곳으로 조선후기 변산반도 유람일기에 대한 연구가 있으나,³⁾ 전북의 다른 지역 유람일기에 대해서는 연구를 찾아보기가 힘들다. 전북지역을 유람한 일을 기록한 개별 일기 작품에 대한 연구도 고려 시대에 이규보가 전주 일대를 유람한 일을 기록한 <남행월일기(南行月日記)>, 조선시대에 강세황이 부안지역을 유람한 일을 기록한 <유우금암기(遊禹金巖記)>에 대한 연구 정도가 발견된다.⁴⁾ 또 조선후기에 20편이 넘는 유람일기를 남긴 송병선이 전북지역을 유람하고 <백암산기(白巖山記)>, <도솔산기(兜率山記)>, <변산기(邊山記)>, <덕유산기(德裕山記)>를 남겼기 때문에, 송병선의 작품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면서 연구 대상에 이들 작품이 포함되기도 하였다.⁵⁾ 전북지역 유람일기의 전체적인 현황이 파악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개별 작품으로의 연구가 확장되지 못한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전북지역 유람일기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활용 가치를 밝혀, 전북지역 유람일기 연구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정민의 『한국역대산수유기취편』과 같은 선집,⁶⁾ ‘국학진흥원 일기류DB’와 같은 일기 관련 DB,⁷⁾ ‘한국고전종합DB’와 같은 문집 관련 DB,⁸⁾ 김미선의 『호남문집 소재 일기류 자료』와 같은 저서,⁹⁾ 각종 연구

-
- 2) 김대현·김미선, 2015, 「호남지방 일기자료 연구의 현황과 과제」, 『호남문화연구』58,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 김미선, 2018, 『호남문집 소재 일기류 자료』, 경인문화사 ; 김순영, 2014, 「호남 유산기의 자료적 특징과 의의」, 『국학연구논총』13, 태민국학연구원 등.
- 3) 김경미, 2018, 「조선후기 변산반도 유람록의 관광학적 고찰-소승규 유봉대산일기를 중심으로」, 『Tourism Research』43, 한국관광산업학회.
- 4) 경일남, 1991, 「<南行月日記>의 隨筆的 特性」, 『한국언어문학』29, 한국언어학회 ; 조법중, 2010, 「이규보의 <南行月日記>에 나타난 고대사 사료검토-普德, 元曉, 眞表 관련 기록을 중심으로」, 『한국인물사연구』13, 한국인물사연구소 ; 변영섭, 2009, 「豹菴姜世晃의 <禹金巖圖>와 『遊禹金巖記』」, 『미술자료』78, 국립중앙박물관.
- 5) 이병찬, 2011, 「연재 송병선의 유기문학 연구」, 『어문연구』68, 어문연구학회 ; 김순영, 2017, 「연재 송병선의 호남 지역 名山 인식에 대한 연구-『연재집』 소재 호남 유산기 작품을 중심으로」, 『어문논총』31, 전남대 한국어문학연구소.
- 6) 정민 편, 1996, 『韓國歷代山水遊記聚編』1-10, 민창문화사 ; 국립수목원 편, 2016, 『산림 역사 자료 연구총서5 충청도, 전라도-산림정책과 산림문화 역사성 규명을 위한 국역 유산기』, 한국학술정보.
- 7) 국학진흥원 일기류DB(<http://diary.ugyo.net/>) ; 호남기록문화유산(<http://memoryhonam.co.kr/>)
- 8)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 ; 미디어한국학(<http://www.mkstudy.com/>) ; 국립중앙도서관(<http://www.nl.go.kr/>)

논문 등을 조사하여 총 40편의 전북지역 유람일기를 확인하고 목록화하였다.

전북지역 유람일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본 논문에서는 40편의 전북지역 유람일기를 지역별, 시기별로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그 활용 가치를 간략히 정리하고자 한다. 전북지역 유람일기에 대한 종합적 조사·정리에 집중한 연구로, 작품 하나하나를 깊이 있게 살피기보다는 작품의 전체적인 현황을 제시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전북지역 유람일기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현 상황에서 본 논문을 통해 전북지역 유람일기의 현황과 대략적인 특징이 파악된다면,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되고, 개별 작품 연구로도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2. 전북지역 유람일기의 지역별 분포

유람일기에서는 유람지역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여행이 쉽지 않았던 시대에, 해당 지역에 여정의 어려움을 감수할 만큼 뛰어난 풍경, 역사적 의미 등이 있어야 유람여행길에 오르게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유람에 그치지 않고 그 과정을 일기로 남긴다는 것은 그만큼 의미가 있는 유람길이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전북의 어떤 지역에 대한 유람일기가 얼마나 남아 있을까? 이를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전북지역 유람일기의 지역별 목록

순번	시군	일기 편수	유람 세부 지역	일기명	저자명	저자 생몰년도	해당 세기
1	고창	3	선운산	도솔산기(兜率山記)	송병선(宋秉璿)	1836-1905	19
			송림	해상일록(海上日錄)	문창규(文昌圭)	1869-1961	20
			장사산	장사산기(長沙山記)	문창규(文昌圭)	1869-1961	20
2	군산	1	천방사 터	유천방사지기(遊千房寺址記)	권현(權揔)	1713-1770	18
3	남원	2	남원 일대	남원유람기(南原遊覽記)	김운덕(金雲惠)	1857-1936	19
			대북암	유복암기(遊福庵記)	정희진(鄭熙鎭)	1822-1891	19
4	무주	3	덕유산	등덕유산향적봉기 (登德裕山香積峰記)	임훈(林薰)	1500-1584	16
			덕유산	유덕유산록(遊德裕山錄)	권뢰(權埭)	1800-1873	19
			덕유산	덕유산기(德裕山記)	송병선(宋秉璿)	1836-1905	19

9) 김미선, 2018, 『호남문집 소재 일기류 자료』, 경인문화사.

순번	시군	일기 편수	유람 세부 지역	일기명	저자명	저자 생몰년도	해당 세기
5	부안	13	격포	유격포기(遊格浦記)	강세황(姜世晃)	1713-1791	18
			변산	유변산록(遊邊山錄)	심광세(沈光世)	1577-1624	17
			변산	유변산기(遊邊山記)	이세환(李世煥)	1664-1752	17
			변산	변산동유일록(邊山東遊日錄)	이기경(李基敬)	1713-1787	18
			변산	유변산록(遊邊山錄)	김수민(金壽民)	1734-1811	18
			변산	유변산일기(遊邊山日記)	박제망(朴齊望)	19세기	19
			변산	변산기(邊山記)	송병선(宋秉璿)	1836-1905	19
			변산	남악기유(南嶽紀遊)	이계서(李溪墅)	19세기	19
			변산	유봉래산일기(遊蓬萊山日記)	소승규(蘇昇奎)	1844-1908	19
			변산	유변산기(遊邊山記)	박모(朴模)	1828-1900	19
			변산	봉래유람일기(蓬萊遊覽日記)	소진덕(蘇鎭德)	1868-1943	20
			변산	유봉래산기(遊蓬萊山記)	박홍현(朴弘鉉)	1892-1930	20
			우금암	유우금암기(遊禹金巖記)	강세황(姜世晃)	1713-1791	18
6	순창	3	대학암	유대학암기(遊大學巖記)	권순명(權純命)	1891-1974	20
			백암산	백암산기(白巖山記)	송병선(宋秉璿)	1836-1905	19
			삼인대	관삼인대기(觀三印臺記)	권순명(權純命)	1891-1974	20
7	완주	2	구이호제	유구이호제기(遊九耳湖堤記)	박인규(朴仁圭)	1909-1976	20
			위봉산성	유위봉산성기(遊威鳳山城記)	이창신(李昌新)	1852-1919	19
8	익산	1	용화산	등용화산기(登龍華山記)	권순명(權純命)	1891-1974	20
9	임실	2	용암산	유용암산기(遊龍巖山記)	송은성(宋殷成)	1836-1898	19
			임산	임산야유기(林山夜遊記)	한중석(韓重錫)	1898-1974	20
10	장수	1	도성암	유도성암기(遊道成庵記)	이정직(李定稷)	1841-1910	20
11	전주	5	전주 일대	남행월일기(南行月日記)	이규보(李奎報)	1168-1241	12
			만덕산	중유만덕산기(重遊萬德山記)	이기(李沂)	1848-1909	19
			만덕산	유만덕산기(遊萬德山記)	이기(李沂)	1848-1909	19
			석양산	유석양산기(遊夕陽山記)	김수민(金壽民)	1734-1811	18
			황방산	유황방산기(遊黃方山記)	박인규(朴仁圭)	1909-1976	20
12	정읍	3	내장사	남유록(南遊錄)	이종림(李鍾林)	1857-1925	20
			성암정	유성암정기(遊星巖亭記)	이재두(李載斗)	1920-1946	20
			평사	태인평사유람기(泰仁平沙遊覽記)	김운덕(金雲惠)	1857-1936	20
13	진안	1	용담	만유기(漫遊記)	박문호(朴文鎬)	1846-1918	19

전북지역 유람일기를 조사할 때, 여러 지역을 유람하면서 전북지역을 함께 유람한 일을 기록한 경우는 연구에 포함시키지 않았다.¹⁰⁾ 전북지역 안에서의 유람을 기록한 일기만을 본 연구에 포함시키되, 단일 산을 유람하였는데 그

산이 여러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선행 연구를 참조하면서 연구 대상에 넣을 지를 정하였다. 예컨대, 전북 순창과 정읍, 전남 장성에 걸쳐져 있는 백암산을 유람한 일을 기록한 송병선의 <유백암산기>는 연구에 포함시켰다.¹¹⁾ 백암산이 전북지역을 넓게 포함하고 있어 전북의 산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며, 편의상 지역을 구분할 때는 순창에 넣었다.

지리산의 경우 전북 남원시, 전남 구례군, 경남 산청군·하동군·함양군에 걸쳐 있는 산으로 그 동안 유산기를 정리할 때 경남지역에 포함시켰다.¹²⁾ 선행 연구에서 경남지역에 포함시킨 점, 주봉이자 최고봉인 천왕봉이 경남지역에 속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도 지리산 유람일기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덕유산은 이와 반대의 경우로 전북 무주군·장수군, 경남 거창군·함양군에 걸쳐 있는 산으로서, 기존 연구 및 본 연구에서 전북지역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본 연구는 ‘유람일기’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유기(遊記)’ 중에서도 일기 형식인 것만을 연구 대상에 넣었다. 유기 중에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 쓴 것도 있고, 설명적인 글, 의론적인 글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유기를 한 곳에 모아 지역별로 정리한 정민의 『한국역대산수유기취편』의 전라북도 편에 포함된 유기 중에서도 일기 형식인 것만 본 연구에 포함시켰다.¹³⁾

그 결과 위 표와 같이 13개 시군에 대한 40편의 유람일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전라북도는 6시 8군으로, 고창군, 군산시,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완주군, 익산시, 임실군, 장수군, 전주시, 정읍시, 진안군으로 시군이 이루어져있다. 이 14개의 시군 중 13개 시군에 대한 유람일기를 확인하였다. 가장

10) 예컨대 호남지역 유람을 기록한 이하곤(李夏坤, 1677-1724)의 <남유록(南遊錄)>(1722년 10월 13일-12월 18일), 호남 일대 사찰을 유람한 일을 기록한 자우(自優, 1709-1770)의 <몽행록(夢行錄)>(1763년 8월 27일-9월 27일)과 같은 작품은 본 연구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11) 『두산백과』의 ‘백암산[白岩山]’ 정의는 “전라북도 순창군 북흥면, 정읍시 입암면과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에 걸쳐 있는 산”이라고 되어 있어 순창이 제일 먼저 나온다. 또한 정민이 편찬한 『韓國歷代山水遊記聚編』(민창문화사, 1996)에도 송병선의 <백암산기>는 전라북도 편에 포함되어 있다.

12) 정민이 편찬한 『韓國歷代山水遊記聚編』(민창문화사, 1996), 조선시대에 산수유기를 모은 『와유록』을 영인, 정리하여 한국정문화연구원(현,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출간한 『臥遊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국립수목원에서 유산기를 국역하여 출판한 『산림역사 자료 연구총서3 경상남도-산림정책과 산림문화 역사성 규명을 위한 국역 유산기』(한국학술정보, 2014) 등에서 지리산을 경남지역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순영도 “일찍이 지리산 유산기를 남긴 김종직과 조식의 영향으로 경상도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김순영, 2014, 『호남 유산기의 자료적 특징과 의의』, 『국학연구론총』13, 태민국학연구원, 6쪽)다고 하면서, 호남 유산기에 지리산 유산기를 넣지 않았다.

13) 『한국역대산수유기취편』 전라북도 편에 수록된 작품 26편 중 일기 형식이 아니라 본 연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작품은 8편으로,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많은 유람일기가 발견된 지역은 부안이었으며, 김제는 1편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전북지역 유람일기를 수량이 많은 지역순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2> 전북지역 유람일기의 지역별 수량

시군	편수	유람 세부 지역(편수)	시군	편수	유람 세부 지역(편수)
부안	13	격포(1), 변산(11), 우금암(1) ¹⁴⁾	완주	2	구이호제(1), 위봉산성(1)
전주	5	전주 일대(1), 만덕산(2) 석양산(1), 황방산(1)	임실	2	용암산(1), 임산(1)
고창	3	선운산(1), 송림(1), 장사산(1)	군산	1	천방사 터(1)
무주	3	덕유산(3)	익산	1	용화산(1)
순창	3	대학암(1), 백암산(1), 삼인대(1)	장수	1	도성암(1)
정읍	3	내장사(1), 성암정(1), 평사(1)	진안	1	용담(1)
남원	2	남원 일대(1), 대북암(1)	김제	.	

시군 단위로 지역을 정리했을 때는 부안이 13편으로 압도적으로 많으며, 전주가 5편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이후 고창, 무주, 순창, 정읍 각 3편, 남원, 완주, 임실 각 2편, 군산, 익산, 장수, 진안 각 1편으로 유람일기가 많진 않지만 여러 지역에서 고르게 발견됨을 확인할 수 있다.

남원은 지리산을 유람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찾았던 곳이다. 1934년 3월 19일부터 4월 7일까지의 지리산 유람을 기록한 김택술(金澤述, 1884-1954)의 <두류산유록(頭流山遊錄)>(『후창집(後滄集)』 내)을 보면 남원에서 지리산에 오르고, 산행이 끝난 후 다시 남원으로 내려온다. 지리산이 남원까지 뻗어 있어, 호남지역의 사람들이 유람할 때는 이렇게 남원을 출발점으로 삼는 경우가 많

일기명	출전	저자명	저자 생몰 연도	일기명	수록 문집	저자명	저자 생몰 연도
덕유산기 (德裕山記)	기언 (記言)	허목 (許穆)	1595-1682	적상산보경사향로봉 (赤裳山寶鏡寺香爐峰)	인재집 (訥齋集)	최현 (崔暉)	1563-1640
사덕기 (四德記)	몽관집 (夢關集)	최유운 (崔惟允)	1808-1877	계곡창촌기 (梯谷滄村記)	명은집 (明隱集)	김수민 (金壽民)	1734-1811
유수송대기 (遊愁送臺記)	천파집 (天坡集)	오숙 (吳翮)	1592-1634	용호동구곡기 (龍湖洞九曲記)	수오재집 (遂吾齋集)	김재홍 (金在洪)	1863-1939
아차봉기 (丫嵯峯記)	청매집 (青梅集)	석인오 (釋印梧)	1721-1809	풍패산수기 (豊沛山水記)	일재집 (逸齋集)	정홍채 (鄭泓采)	생몰미상

14) 격포와 우금암은 변산 안의 한 지점으로 넓게 보면 모두 변산에 속한다. 하지만 <유격포기>와 <유우금암기>는 변산 전체를 유람한 것이 아니라 이 단일 지점만 유람한 것이 제목과 내용에 드러난다. 그렇기 때문에 변산지역을 전체적으로 유람한 일을 기록한 다른 작품과 격포, 우금암만 유람한 일을 기록한 작품은 세부 지역을 구분하였다.

았다. 하지만 앞서도 언급했듯이 기존 연구 및 본 연구에서 지리산을 경남지역에 포함시켰고, 본 연구에서는 유람여행 중 전북을 경유하는 경우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남원을 통해 지리산을 유람한 일을 기록한 일기는 본 연구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며,¹⁵⁾ 지리산 외 남원지역을 유람한 일을 기록한 일기는 2편을 발견하였다.

유람 세부 지역 중 ‘석양산’은 현재에 정확히 어느 산인지를 찾지 못하였다. 다만 일기의 첫 부분에 완부(完府) 이사(李査)의 집에 갔다가 석양산이라는 곳에 주천자동(朱天子洞)이 있으며, 이곳 돌에 화상이 새겨져 있다는 것을 듣고 이곳에 가게 되었다고 서술되어 있다. ‘완부’는 전주의 옛 명칭이므로 이 인근을 간 것으로 보아 전주에 포함시켰다. 완주의 ‘구이호제(九耳湖堤)’, 임실의 ‘임산(林山)’ 등도 정확한 지역은 알기 어려우나 일기 속 설명을 통해 해당 시군을 대략 파악할 수 있었다.

관직으로 인해 1199년 6월부터 1200년 12월까지 전주에 머물렀던 이규보가 전주 일대를 유람한 일을 기록한 <남행월일기> 이외의 작품들은 대부분 특정 산, 누대, 절, 산성과 같은 단일 지역을 일주일 내외의 비교적 짧은 기간에 다녀 온 일을 기록하였다. 유람한 세부 지역을 살펴보면 변산(11편), 덕유산(3편), 만덕산(2편) 등 산을 유람한 것이 가장 많아, 40편의 유람일기 중 24편이 산을 유람한 일을 기록한 것이다.

전북지역 유람일기를 시군별로 살펴볼 때 가장 많은 유람일기가 발견된 지역은 부안으로, 그곳에는 경치가 빼어난 변산이 있기 때문이었다. 변산 유람을 기록한 일기만 11편에 이르러, 전북의 다양한 산 중 가장 많은 유람일기를 볼 수가 있다.

변산은 바닷가의 산이다. 국내에서 이름났고 세상에서는 소봉래(小蓬萊)라고 일컫는데, 동봉(東峯)과 월사(月沙)가 모두 금강산이나 지리산과 으뜸을 다투다고 하였다.¹⁶⁾

위는 송병선 <변산기>의 첫 부분을 예로 든 것이다. 봉래산은 중국 전설상의 산으로 영주산(瀛州山), 방장산(方丈山)과 함께 삼신산으로 일컬어진다. 변

15) 범위의 일관성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지만, 남원지역에서 출발하여 지리산을 유람한 일을 기록한 일기는 당대 남원지역 여행문화를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

16) 宋秉璿, <邊山記>, 『淵齋集』 “邊山海嶽也. 名於國中, 世稱小蓬萊, 東峯月沙, 皆以金剛智異.” ; 국립수목원 편, 2016, 『산림역사 자료 연구총서5 충청도, 전라도-산림정책과 산림문화 역사성 규명을 위한 국역 유산기』, 한국학술정보, 117쪽

산은 작은 봉래산[小蓬萊]이라 불릴 정도로 조선후기에 명성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11편의 변산 유람일기 중 소승규의 <유봉래산일기>, 소진덕의 <봉래유람일기>, 박홍현의 <유봉래산기>와 같은 작품의 제목에서도 ‘봉래산’이라고 일컫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여기에서 언급한 동봉은 매월당 김시습(金時習, 1435-1493), 월사는 이정귀(李廷龜, 1564-1635)로 이들이 변산을 금강산, 지리산과 으뜸을 다룬다고 했을 정도로 경치를 칭찬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명성을 들은 송병선은 일찍부터 변산을 유람하고 싶어했다가 1890년에 비로소 변산을 여행하게 되고 이 유람일기를 남긴다. 송병선은 실제 변산을 유람한 후 금강산과 함께 논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긴 하지만, 변산에 대한 조선후기의 명성을 알 수가 있다.¹⁷⁾

부안지역 유람일기 중 변산 외의 지역이 제목에 드러난 작품은 강세황의 <유격포기>와 <유우금암기>이다. 두 작품은 각각 격포와 우금암 유람을 담고 있는데, 사실 이 두 곳도 모두 변산반도 안에 있다. 격포의 경우 변산면에 있는 포구이고, 우금암의 경우 상서면에 속하지만 송병선의 <변산기> 등을 보면 변산을 유람할 때 우금암도 함께 여행함을 볼 수 있다. 곧 부안의 변산이 전북지역의 대표적인 명승임을 유람일기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3. 전북지역 유람일기의 시기별 현황

전북지역 유람일기는 1199년-1200년에 전주 일대를 유람한 일을 기록한 이규보의 <남행일기>부터 1969년 여름에 전주 황방산을 유람한 일을 기록한 박인규의 <유황방산기>에 이르기까지 약 800년 가까이 작품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15세기 이전의 유람일기는 이규보의 <남행일기>가 유일하며, 16세기부터 작품이 꾸준히 발견된다. 전북지역 유람일기의 수량을 시기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7) 변산은 조선시대 예언서인 『정감록(鄭鑑錄)』에 ‘십승지(十勝地)’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으며, 현재에도 전북지역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이다. 건국대 사학과에서 2013년 편찬한 『역사와 이야기가 있는 답사기행2-전라북도 편』에서도 부안에 대해 ‘유형원과 매창 그리고 변산반도, 부안’이라는 제목을 붙여, 부안 관련 인물로는 유형원과 매창을, 관광지로는 절경 변산반도를 설명하고 있다.(건국대 사학과 편, 2013, 『역사와 이야기가 있는 답사기행2-전라북도 편』, 새문사, 168-213쪽) 2017년에 한국의 승지에 대한 시조집을 출간한 한상철도 ‘변산(邊山)8경’이라는 제목아래 내륙 10경 중 하나로 변산을 읊고 있다.(한상철, 2017, 『명승보(名勝譜)』, 수서원, 44-48쪽)

〈표 3〉 전북지역 유람일기의 시기별 수량

세기	15세기 이전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일기 편수	1	1	2	6	16	14

전북지역 유람일기는 15세기 이전 1편, 16세기 1편, 17세기 2편, 18세기 6편, 19세기 16편으로 꾸준히 수량이 증가하였으며, 한문일기가 사라져가는 20세기에도 14편이 발견되었다. 김미선이 호남문집 소재 일기를 조사한 것을 살펴보면 14-15세기에 5편, 16세기에 75편, 17세기에 59편, 18세기에 57편, 19세기에 172편, 20세기에 197편의 일기가 발견된다.¹⁸⁾ 19-20세기에 폭발적으로 많은 호남문집 소재 일기가 발견되는데, 전북지역 유람일기도 이와 궤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세기별로 전북지역 유람일기를 살펴되, 17세기까지는 일기의 수량이 4편에 불과하기 때문에 ‘17세기 이전’으로 묶었다. ‘17세기 이전’, ‘18세기’, ‘19세기’, ‘20세기’로 절을 나누어 일기 기간순으로 정리한 목록을 제시하고, 세기별로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를 살피고자 하였다. 일기 기간이 미상인

18) 김미선, 앞의 책, 282쪽. 이외에도 황위주가 조선시대 관청·공동체·개인의 일기를(황위주, 2007, 『조선시대 일기자료의 현황과 활용방안』, 『국역 조선시대 서원일기』, 한국국학진흥원, 770쪽), 최은주가 조선시대 개인의 일기를(최은주, 2009, 『조선 시대 일기 자료의 실상과 가치』, 『대동한문학』30, 대동한문학회, 12쪽), 김미선이 조선시대 한문 기행일기 및 섬 여행을 기록한 조선시대 기행일기를 시기별로 정리한 바 있다.(김미선, 2019, 『조선시대 한문 기행일기의 현황과 가치』, 『한국민족문화』71, 부산대 민족문화연구소, 5쪽 ; 김미선, 2019, 『섬 여행을 기록한 조선시대 기행일기』, 『도서문화』53,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36쪽)
이들의 조사는 모두 시기를 조선시대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고려시대부터 20세기 근현대까지 한문으로 된 전북지역 유람일기를 살핀 본 연구와 시기에 차이가 있다. 20세기의 경우도 최은주는 ‘20세기초’까지 조사하였으며, 김미선은 1910년까지의 기행일기만을 본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선시대에 가장 많은 일기가 발견되고 일기 발견의 변화 폭도 크기 때문에 참조를 위해 연구자별 일기 수량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황위주	최은주	김미선 (조선시대 한문 기행일기)	김미선 (섬 여행을 기록한 조선시대 기행일기)
14-15세기	15	7	17	·
16세기	165	142	65	3
17세기	243	211	246	7
18세기	305	228	417	10
19세기	437	273	481	27
20세기	178	27	52	1
미상	259	49	1	·
총 수량	1,602	937	1,279	48

경우는 저자 생몰년을 바탕으로 유람 시기를 추정하여 해당 세기 목록의 마지막에 넣되, 저자 생년순으로 수록하였다.

1) 17세기 이전

17세기 이전 전북지역 유람일기는 모두 4편이 발견되었다. 고려시대에는 12세기말의 이규보 작품 1편만이 발견되었으며, 이후 16세기 1편, 17세기 2편이 발견되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17세기 이전 전북지역 유람일기 목록

순번	일기명	출전	저자명	저자 생몰 연도	일기 기간	유람지역
1	남행월일기 (南行月日記)	동국이상국집 (東國李相國集)	이규보 (李奎報)	1168-1241	1199년 6월 -1200년 12월	전주 일대
2	등덕유산향적봉기 (登德裕山香積峰記)	갈천집 (葛川集)	임훈 (林薰)	1500-1584	1552년 8월 24일-29일	무주 덕유산
3	유변산록 (遊邊山錄)	휴옹집 (休翁集)	심광세 (沈光世)	1577-1624	1607년 5월	부안 변산
4	유변산기 (遊邊山記)	과재집 (果齋集)	이세환 (李世煥)	1664-1752	1687년 5월	부안 변산

가장 이른 시기의 전북지역 유람일기는 이규보의 <남행월일기>이다. 이규보는 1199년 6월에 전주목 사록겸서기(司錄兼書記)에 임명되었고,¹⁹⁾ 다음해 12월까지 전주에 머무르며 전주 일대와 인근 지역을 유람했던 일을 <남행월일기>에 기록하였다. 1년 넘는 기간이 빠짐없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주요 여행을 중심으로 간헐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규보는 일기 속에 전주에서 서울로 돌아온 후 한가할 때 기존에 썼던 글을 읽어본 후 대부분을 불살라버리고 한 두 가지 읽을 만한 것을 모아 정리했다고 언급하였다. 곧 경험 중에 작성한 일기를 후에 정리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더 줄어들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고려시대 전북지역 유람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일기로서, 당시 전북지역의 모습을 보여 주고, 절과 관련한 설화 등을 담고 있는 의미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19) 경일남, 1991, 「<南行月日記>의 隨筆의 特性」, 『한국언어문학』29, 한국언어문학회, 217쪽

전주는 완산이라고도 하는데 옛적 백제국이다. 인구가 번성하고 집들이 즐비하여 옛날 모습이 남아 있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소박하지 않고 아전들도 의관을 차례 입은 선비와 같아 그들의 행동을 자세히 살피면 볼 만한 것이 있었다.²⁰⁾

위는 전주에 대해 기술한 부분을 예로 든 것으로, 고려시대에 인구가 번성하고 집들이 즐비했던 전주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또한 이규보는 1년 넘는 시간 동안 전주에 머물렀기 때문에, 시간이 될 때 인근의 다른 지역도 가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의 유람 공간은 전주를 중심으로 하여 부안의 변산, 남원 등에까지 이르렀다. 곧 그의 일기를 통해 고려시대 전북의 다양한 지역을 볼 수가 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조선이 건국되고 160년이 지난 1552년에 전북지역을 유람한 일을 기록한 일기가 발견된다. 임훈이 쓴 <등덕유산향적봉기>가 그것이다. 임훈은 자기 집 바로 근처의 산인 덕유산의 세 봉우리 중 황봉(黃峯)과 불영봉(佛影峯)은 유람하였으나 향적봉은 유람하지 못해 안타까워하다가, 1552년 8월에 선이 넘은 나이로 유람길에 오르게 된다. 유람을 떠나게 된 경위가 적힌 후 1552년 8월 25일부터 8월 29일까지의 경험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스님들과 함께 유람길에 올라 절이나 스님들 관련 전설 등을 볼 수가 있다.

17세기의 전북지역 유람일기 2편은 1607년과 1687년의 변산 유람을 기록한 것으로, 각각 심광세와 이세환의 작품이다. 80년의 차이가 나지만 두 사람 모두 5월에 변산 유람을 떠나며, 이들의 작품 이후 20세기 초반까지 변산 유람을 기록한 일기는 꾸준히 발견된다.

이중 심광세의 <유변산록>은 뒷부분이 유실되긴 하였지만, 유람한 지역을 중심으로 풍경 묘사 등이 자세하다. 당시 31세이던 심광세는 부안 현감으로 있던 중에 변산 유람을 떠나게 되며, 어수대(御水臺), 화룡연(火龍淵), 직연(直淵, 직소폭포), 진선대(眞仙臺), 월정대(月精臺), 주암(舟巖), 용암(龍巖), 마천대(摩天臺) 등 변산의 주요 유람지역을 유람 순서대로 자세히 묘사하였다.

진선대는 가장 멀고 외진 곳에 있어서 비록 이 산에 사는 승려들도 가 보았다는 자가 적었다. 더욱이 벼슬아치들이 오면 음식을 대접하고 가마를 메야만 하는 고통이 따랐으니 더 말할 나위가 없었으

20) 李奎報, <南行月日記>, 『東國李相國集』 “夫全州者, 或稱完山, 古百濟國也。人物繁浩, 屋相櫛比, 有故國之風。故其民不樵朴, 吏皆若衣冠士人, 進止詳審可觀。” ; 이규보 저/김상훈·류희정 역, 2005, 『조물주에게 묻노라』, 보리, 408쪽

리라. 그 때문에 이곳 절의 승려들은 서로가 무리를 지어 숨어 버리기도 하고, 또 함께 피해 버리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전에 왔던 관료들 중에는 아직까지 이곳에 와 본 자가 없었다.²¹⁾

위는 진선대에 대해 기록한 부분의 일부이다. 인용한 부분에 앞서 작은 돌이 쌓여 있어 발을 디디기만 해도 무너지고 미끄러지는 길을 서로 부축하며 간신히 올라가는 과정이 기록된다. 그리고 위와 같이 승려들이 이곳을 찾는 벼슬아치들을 위해 음식을 대접하고 가마를 메어주어야 하는 고통을 겪어, 결국 도망가 버리는 상황을 설명했다. 이를 통해 변산의 진선대 등을 벼슬아치들이 많이 유람했다는 사실과 벼슬아치들의 유람에 승려들이 동원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다. 이어 험악한 길을 걸어 진선대에 오르는 과정이 간략히 기록된 후, 진선대 정상에서 본 풍경이 아래와 같이 묘사되고 있다.

진선대에 올라서 사방을 바라다보았다. 푸르스름한 몇몇 점이 서해에서 나왔으니, 군산도·왕등도·구위도와 같은 여러 섬이다. 고운 눈썹을 칠한 듯 남쪽으로 한 줄기 비스듬히 뻗어 나간 것은 백암산·내장산·선운산과 같은 여러 산이다. 먼 곳은 큰 바다가 아득히 펼쳐져 있고 파도도 눈 끝까지 펼쳐졌으며, 가까운 곳은 늘어선 고을이 뒤섞여 들판에 가득 차 보인다. 동북쪽으로는 못 봉우리가 뻗뻗하게 서 있고 절벽들은 하늘 높이 솟아 푸른빛과 비취빛을 끌어모으는데, 봉황이 나는 듯 난새가 춤을 추는 듯 다 그 자리 앞에서 한없는 찬탄을 보내는 것만 같았다.²²⁾

변산은 바닷가에 위치한 특성이 있으며, 변산을 사람들이 많이 찾게 된 데에는 그곳에서 보게 되는 바다의 풍경이 한 이유가 되었을 것이다. 위에서는 변산의 진선대에서 보게 되는 여러 산들과 멀리 보이는 바다, 하늘 높이 솟은 절벽의 모습들이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다.

21) 沈光世, <遊邊山錄>, 『休翁集』 “臺最遠且僻, 雖縉流之居此山者, 見之者鮮. 況官人有廚傳之弊, 肩輿之苦. 故寺僧相與群蔽而共諱之. 是以前此公行, 未有至者.”; 전송열·허경진 편역, 2016, 『조선 선비의 산수기행』, 돌베개, 199쪽

22) 沈光世, <遊邊山錄>, 『休翁集』 “登臺四望, 則蒼然數點, 出於西海者, 群山王登鳩嶼諸島也. 翠黛一抹, 橫拖迤南者, 白巖內藏禪雲諸山也. 遠而溟渤浩淼, 波濤極目, 近而列邑交錯, 原野盈視. 東北則群峯森立, 石崖天高, 攢青簇翠, 鳳翔鸞舞, 咸來座下, 獻奇呈勝.”; 전송열·허경진 편역, 위의 책, 199-200쪽

17세기 후반 이세환의 <유변산기>는 전체 분량이 필사본으로 3면을 차지한다. 그런데 심광세의 <유변산록>은 뒷부분이 유실되었어도 간행본으로 12면에 이르러 비교적 내용이 풍부한 편이다. 또한 시기적으로도 변산 유람일기 중 가장 이른 것으로서, 17세기 초반 변산 유람을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2) 18세기

18세기 전북지역 유람일기는 1742년의 군산 천방사 터 유람을 기록한 권현의 <유천방사지기>부터 1794년의 부안 변산 유람을 기록한 김수민의 <유변산록>에 이르기까지 모두 6편이 발견되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18세기 전북지역 유람일기 목록

순번	일기명	출전	저자명	저자 생몰 연도	일기 기간	유람지역
1	유천방사지기 (遊千房寺址記)	진명집 (震溟集)	권현 (權攄)	1713-1770	1742년 봄	군산 천방사 터
2	변산동유일록 (邊山東遊日錄)	목산고 (木山藁)	이기경 (李基敬)	1713-1787	1748년 윤7월 17일-25일	부안 변산
3	유격포기 (遊格浦記)	표암유고 (豹菴遺稿)	강세황 (姜世晃)	1713-1791	1770년 5월	부안 격포
4	유우금암기 (遊禹金巖記)	표암유고 (豹菴遺稿)	강세황 (姜世晃)	1713-1791	1770년경	부안 우금암
5	유석양산기 (遊夕陽山記)	명은집 (明隱集)	김수민 (金壽民)	1734-1811	1781년 1월 11일	전주 석양산
6	유변산록 (遊邊山錄)	명은집 (明隱集)	김수민 (金壽民)	1734-1811	1794년 4월	부안 변산

18세기 전북지역 유람일기 중 권현과 이기경의 일기는 1740년대의 유람을 기록한 것이며, 나머지 4편은 1770년대 이후의 유람을 기록한 것이다. 또한 18세기 후반 4편의 전북지역 유람일기는 강세황과 김수민이 각각 2편씩 남긴 것이다.

조선후기에는 유람여행이 성행하였고, 본인의 유람경험을 글로 남기는 것이 유행하였다. 김창협은 선인들의 유람기록을 모은 『와유록』을 가지고 1671년에 금강산 유람길에 오르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고연희는 “당시 산수기행문학을 분류하여 별도의 책으로 만들어 당대의 유명 문인이 소지하고 다닐 정도로 장

르에 대한 장르 인식이 확고하게 형성되어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²³⁾ 또 17세기 후반에 휴대용 수진지도책(袖珍地圖冊)이 등장한 것과 관련하여 “극성스런 유람문화를 반영하는 일”이라고 표현하였다.²⁴⁾

17세기의 이러한 유행은 18세기, 19세기로 갈수록 더욱 확대된다. 조선시대 한문 기행일기를 조사한 김미선은 기행일기의 수량을 17세기 246편, 18세기 417편, 19세기 481편이라고 제시하여, 18-19세기에 기행일기가 전성기를 이룸을 확인시켜 주었다.²⁵⁾ 아울러 조선시대 기행일기 속 주된 여행 목적은 ‘유람’으로, 기행일기 중 유람이 목적인 것이 약 80%라고 하였다.²⁶⁾ 또 산수유기를 주요 자료로 하여 조선시대 유람문화를 연구한 이상균은 16-17세기를 유람문화 확산기, 17-18세기를 유람문화 정착기, 18세기 이후를 유람문화 보편기라고 정리하기도 하였다.²⁷⁾

여러 연구 성과를 통해 유람여행이 성행했던 18세기에 유람일기도 다수 작성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때의 사람들은 여러 차례 유람여행을 떠나고 여러 편의 유람일기를 남기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강세황과 김수민도 이러한 사람에 속한다.

강세황은 전북지역 유람일기인 <유격포기>, <유우금암기> 외에도 3편의 유람일기를 더 남겼다. 두 작품과 함께 문집 『표암유고』에 수록된 것으로, 1781년 9월 3일에 어가를 따라 금원을 유람한 일을 기록한 <호가유금원기(扈駕遊禁苑記)>, 1788년 9월 9일에 의관령에 올라 노닐 일을 기록한 <중구일등의관령소기(重九日登義館嶺小記)>, 1788년 9월 13일-17일에 금강산을 유람한 일을 기록한 <유금강산기(遊金剛山記)>가 그것이다.

김수민도 전북지역 유람일기인 <유석양산기>, <유변산기> 외에 세 편의 유람일기를 더 남겼다. 그의 문집인 『명은집(明隱集)』 권15에 ‘유산록’이라는 이름 아래 함께 수록된 것으로, 1792년 9월 16일에 망덕산을 유람한 일을 기록한 <망덕산기(望德山記)>, 1795년 9월 9일-29일에 삼동산을 유람한 일을 기록한 <삼동유산록(三洞遊山錄)>, 1797년에 남산을 유람한 일을 기록한 <남산기(南山記)>가 그것이다.

이들은 여러 차례 유람여행을 떠나는 과정에서 전북지역도 유람하였고 위와

23) 고연희, 2007, 『조선후기 산수기행예술 연구』, 일지사, 27쪽

24) 고연희, 위의 책, 152쪽

25) 김미선, 2019, 『조선시대 한문 기행일기의 현황과 가치』, 『한국민족문화』71, 부산대 민족문화연구소, 5쪽

26) 김미선, 2019, 『조선시대 기행일기 속 여행 목적』, 『국어문학』71, 국어문화회, 154-155쪽

27) 이상균, 2013, 『朝鮮時代 遊覽文化 研究』, 강원대 박사학위논문, 17쪽

같이 두 편의 유람일기를 남겼다. 이중 강세황은 조선후기의 대표적인 문인화가로서 유람한 전북지역을 그림으로도 남겨 의미가 있다.²⁸⁾ 그가 부안의 우금암을 유람하고 그린 <우금암도(禹金巖圖)>가 현존하여,²⁹⁾ 일기를 통해 유람과정, 그림을 통해 당시 강세황이 본 풍경을 볼 수가 있다.

절에 들어가 절 뒤를 쳐다보니 만 길이나 되는 높은 산봉우리가 구름사이에 꽃혀 있고, 산봉우리 끝에 바위 세 개가 있어 높이가 백여 길이나 된다. 견여(肩輿)를 타고 올라가니 바위 밑에 굴이 있었다. 크기는 백 간의 집과 같고, 깊이는 수십 길이 되는데, 벽의 무늬가 종횡으로 나 있어 마치 화려한 비단 같았다. 이것이 우진굴(禹陳窟) 일명 우금굴(禹金窟)이라 한다.³⁰⁾

위는 <우금암기>의 일부분으로, 절 뒤편 세 개의 바위로 이루어진 우금암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또 두 사람이 어깨에 메는 가마인 견여를 타고 올라가서 보게 되는 거대하고도 화려한 우진굴의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다.

강세황은 둘째 아들 강훈(姜恂)이 부안 현감으로 부임했기 때문에 아들을 따라와 부안에 머물다가 우금암과 격포를 유람하게 되었다. 격포는 경인년(1770년) 5월에 유람했다고 <유격포기> 첫 부분에 나와 있으나 우금암을 유람한 연도는 나와 있지 않다. 다만 2월에 유람했음이 일기에 드러나며, 둘째 아들이 부안 현감으로 있던 시기 중 2월은 1770년 2월과 1771년 2월이 해당되어 그 두 해 중 한 해에 유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강세황은 부안의 관아에 계속 머물렀기 때문에 여러 차례 부안지역 유람을 떠날 수 있었고, 부안 현감의 아버지였기 때문에 가마를 타고 비교적 편하게 유람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8) 이와 관련하여 변영섭은 논문 『豹菴 姜世晃의 <禹金巖圖>와 『遊禹金巖記』』(『미술자료』78, 국립중앙박물관, 2009, 24쪽)에서 유람일기 <유우금암기>와 그림 <우금암도(禹金巖圖)>에 대해 “조선시대 문인들이 산수 유람을 하고 글이나 그림을 남긴 예가 적지 않으나 그 중에 그림과 유기를 동시에 남긴 사례는 드물다. 더구나 현존하는 실물을 찾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인 것을 고려할 때 사료적 조건을 두루 갖춘 이 작품이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만하다.”고 하였다.

29) <우금암도>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우금암 실경→유기→우금암 주변 여행지 실경’의 순서로 이루어져 있다.(변영섭, 위의 논문, 24쪽, 각주 2와 3)

30) 姜世晃, <遊禹金巖記>, 『豹菴遺稿』 “入寺, 仰見寺後, 萬丈高峰, 插入雲際, 峯頭有三石, 高皆百餘丈. 乘肩輿上, 石底有窟. 大如百間屋, 深可數十丈, 壁紋縱橫, 如文錦焉, 是爲禹陳【或云金】窟.”; 강세황 저/김종진 외 역, 2010, 『표암유고』, 지식산업사, 396쪽

해가 기울어 물살이 점점 약해지자 말을 재촉하여 나서니, 길은 물에 질펀하고 작은 돌과 조개껍질이 땅에 가득 널려 있다. 산기슭은 들고 나는 파도에 씻기어 바윗결이 다 드러났는데, 세밀하게 속속들이 깎아 놓은 솜씨가 마치 조각을 해 놓은 것 같았다. 혹 십여 리나 끊이지 않기도 하고 혹 끊어졌다가 다시 나타나기도 하니, 만약 미불(米莆)이 여기에 이르렀다면 바위마다 절할 겨를이 없어 아마 포복하여 지나갔을 것이라며 한 차례 웃음거리로 삼았다.³¹⁾

위는 <유격포기>의 일부분으로, 바닷가를 유람할 때는 말을 이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작은 돌과 조개껍질이 널린 땅, 파도에 씻긴 바윗돌 등 바닷가의 풍경과 함께, 북송의 미불이 기이한 돌에 절을 했다는 고사를 이야기하며 일행들이 한바탕 웃은 일화도 기록되어 있다. 당시 유람길의 모습을 일기를 통해 생생하게 파악할 수가 있다.

18세기 전북지역 유람일기의 지역을 살펴보면 부안지역 유람일기가 4편에 이른다. 그로인해 18세기 부안의 변산 및 인근 지역이 어떠한지를 비교적 풍부하게 볼 수 있다. 또한 전북의 여러 시군 중 군산지역을 유람한 일을 기록한 일기는 이 시기 권현의 <유천방사지기>가 유일한 것으로, 전북지역 유람일기의 지역을 확대해 주고 있다.

3) 19세기

19세기 전북지역 유람일기는 16편이 발견되어, 가장 많은 수량을 보인다. 1852년의 덕유산 유람을 기록한 권뢰의 <유덕유산록>부터 1898년의 남원 유람을 기록한 김운덕의 <남원유람기>에 이르기까지 13편의 일기는 유람 연도를 알 수 있으며, 유람 시기는 미상이나 19세기로 추정되는 일기도 3편이 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1) 姜世晃, <遊格浦記>, 『豹菴遺稿』 “至日昃, 水勢漸殺, 促駕而出, 路甚沮洳, 碎石螻蝻, 平鋪滿地. 山脚爲潮所漱蕩, 石骨盡露, 玲瓏透漏, 巧若雕斲. 或十餘里不絕, 或斷而復出. 使米老到此, 不暇盡拜, 將匍匐而過, 爲之一哂.” ; 강세황 저/김종진 외 역, 위의 책, 360쪽

〈표 6〉 19세기 전북지역 유람일기 목록

순번	일기명	출전	저자명	저자 생몰 연도	일기 기간	유람지역
1	유덕유산록 (遊德裕山錄)	용이와집 (龍耳窩集)	권뢰 (權耒)	1800-1873	1852년 3월 14일-4월 3일	무주 덕유산
2	유변산일기 (遊邊山日記)	수월사고 (水月私稿)	박제망 (朴齊望)	19세기	1864년 4월 6일-17일	부안 변산
3	백암산기 (白巖山記)	연재집 (淵齋集)	송병선 (宋秉璿)	1836-1905	1869년 2월	순창 백암산
4	도솔산기 (兜率山記)	연재집 (淵齋集)	송병선 (宋秉璿)	1836-1905	1869년 2월	고창 선운산
5	변산기 (邊山記)	연재집 (淵齋集)	송병선 (宋秉璿)	1836-1905	1869년 2월	부안 변산
6	덕유산기 (德裕山記)	연재집 (淵齋集)	송병선 (宋秉璿)	1836-1905	1869년 5월	무주 덕유산
7	유만덕산기 (遊萬德山記)	해학유서 (海鶴遺書)	이기 (李沂)	1848-1909	1870년 10월 4일	전주 만덕산
8	중유만덕산기 (重遊萬德山記)	해학유서 (海鶴遺書)	이기 (李沂)	1848-1909	1870년 11월	전주 만덕산
9	남악기유 (南嶽紀遊)	계서고 (溪墅稿)	이계서 (李溪墅)	19세기	1880년 8월 1일-15일	부안 변산
10	유복암기 (遊福庵記)	신희유고 (愼晦遺稿)	정희진 (鄭熙鎭)	1822-1891	1884년 6월	남원 대복암
11	만유기 (漫遊記)	호산집 (壺山集)	박문호 (朴文鎬)	1846-1918	1894년 8월 21일-26일	진안 용담
12	유봉래산일기 (遊蓬萊山日記)	난곡유고 (蘭谷遺稿)	소승규 (蘇昇奎)	1844-1908	1897년 4월 16일-5월 1일	부안 변산
13	남원유람기 (南原遊覽記)	추산유고 (秋山遺稿)	김운덕 (金雲惠)	1857-1936	1898년 봄	남원 일대
14	유변산기 (遊邊山記)	노하집 (蘆河集)	박모 (朴模)	1828-1900	미상	부안 변산
15	유용암산기 (遊龍巖山記)	백하집 (白下集)	송은성 (宋殷成)	1836-1898	미상	임실 용암산
16	유위봉산성기 (遊威鳳山城記)	괴정집 (槐亭集)	이창신 (李昌新)	1852-1919	미상	완주 위봉산성

19세기 전북지역 유람일기를 남긴 저자는 모두 12명이며, 이중 2편 이상을 남긴 사람은 송병선, 이기, 김운덕이다. 특히 송병선은 순창 백암산, 고창 선운산, 부안 변산, 무주 덕유산 등 전북의 네 지역에 대한 유람일기를 각각 남겼다. 송병선은 19세기 후반 연재학파를 형성하였다고 평가 받는 큰 학자이며, 조

선 후기의 대표적인 유기자이기도 하다.³²⁾ 그는 22편에 이르는 유기를 남겼으며,³³⁾ 그의 작품들은 모두 일기 형식을 가지고 있어 유람일기로 볼 수 있다. 22편의 유람일기는 문집에 유람 시기순으로 수록되어 있으며, 1869년에 호남 지역을 유람하면서 7편의 유람일기를 남겼다.³⁴⁾ 그중 4편이 위와 같이 전북지역 유람을 기록한 것이다. 김순영은 송병선의 유람이 영남지역은 서원을 중심으로, 호남지역은 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였는데,³⁵⁾ 전북의 네 유람지역은 모두 전북의 주요 산이다.

송병선은 충청도, 경상도, 평안도, 황해도, 강원도, 전라도 등 전국으로 유람 여행을 다녔고, 유람일기를 남겼다. 아래는 전북지역의 덕유산을 유람한 일을 기록한 <덕유산기>의 첫 부분이다.

덕유산(德裕山)은 영남과 호남에 걸쳐 자리 잡고 있는데, 드넓고 웅장하여 지리산(智異山)과 함께 호남의 울타리가 되어 남다른 사람이나 숨은 선비들이 그 사이에서 노닐었다. 내가 우거하는 곳에서 백리밖에 되지 않아 마음속으로는 항상 한번쯤 유람하고자 하였으나 겨를이 없었다.³⁶⁾

덕유산은 금강산, 지리산처럼 전국적으로 유명한 산은 아니다. 그러나 송병선은 위와 같이 항상 유람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고, 실제 실행에 옮기는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전국적인 유명한 산뿐 아니라 각 지역의

32) 이병찬, 2011, 「연재 송병선의 유기문학 연구」, 『어문연구』68, 어문연구학회, 333·335쪽

33) <유황산급제명승기(遊黃山及諸名勝記)>, <유금오산기(遊金烏山記)>, <서유기(西遊記)>, <동유기(東遊記)>, <지리산북록기(智異山北麓記)>, <서석산기(瑞石山記)>, <적벽기(赤壁記)>, <백암산기(白巖山記)>, <도솔산기(兜率山記)>, <변산기(邊山記)>, <덕유산기(德裕山記)>, <황악산기(黃岳山記)>, <수도산기(修道山記)>, <가야산기(伽倻山記)>, <단진제명승기(丹晉諸名勝記)>, <금산기(錦山記)>, <두류산기(頭流山記)>, <유승평기(遊昇平記)>, <유교남기(遊嶠南記)>, <유월출천관산기(遊月出天冠山記)>, <유안음산수기(遊安陰山水記)>, <유화양제명승기(遊華陽諸名勝記)>

34) 이병찬에 의하면 문충사 소장 『호남기(湖南記)』에는 ‘유호남기(遊湖南記)’라는 제목으로 7편의 유람일기가 실려 있다고 한다.(이병찬, 앞의 논문, 340쪽) 본 연구에서는 문집에 수록된 편제를 따랐기 때문에 7편으로 나누어 보았으며, 이병찬, 김순영 등 기존 연구자들도 문집 편제에 따라 7편으로 나누어 연구하고 있다.

35) 김순영, 2017, 「연재 송병선의 호남 지역 名山 인식에 대한 연구-『연재집』 소재 호남 유산기 작품을 중심으로」, 『어문논총』31, 전남대 한국어문학연구소, 56쪽

36) 宋秉璿, <德裕山記>, 『淵齋集』 “德裕山, 盤據嶺湖之界, 磅礴雄傑, 與智異相埒, 畸人逸士, 往往徜徉於其間. 去吾寓地, 不過百里, 意常欲一遊, 而未暇焉”; 국립수목원 편, 앞의 책, 97쪽

의미 있는 산들을 여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듯하며, 그런 태도가 있었기에 19세기 후반 한반도 곳곳에 대한 유람일기를 남길 수 있었을 것이다. 현재까지 발견한 전북지역 유람일기는 40편인데, 그중 4편이 송병선의 작품으로 한 사람의 작품이 10%에 이르고 있다. 그로 인해 전북지역 유람일기가 더 풍부해지고 있는 것이다.

3, 4리를 가서 수승대(搜勝臺)에 도착하였다. 대는 전체가 돌로 이루어졌고, 물속에서 불쑥 솟아오른 것이 커다란 거북이가 엮드린 모습과 비슷하였다. 모나고 둥근 기이한 형상은 마치 세속을 멀리하는 선비처럼 홀로서서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아서 멀리서 바라보면 공중에 떠 있는 물건 같았다. …… 대 이름은 본래 수송(愁送)이었는데 퇴계(退溪)가 수승으로 바꾸었고, 바위 면에 퇴계의 시가 새겨져 있는데, 옛날이나 지금 사람들이 이름을 새긴 것이 많았다.³⁷⁾

위는 송병선의 <덕유산기> 중 수승대에 대해 기록한 부분의 일부이다. 당시의 풍경을 비유를 들어 묘사하였으며, 퇴계로 인해 대의 이름이 바뀐 사실과 퇴계의 시와 사람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듯 그의 글을 통해 19세기 후반 전북지역 산의 풍경, 역사적 사실 등을 볼 수가 있다.

이기는 두 편의 전북지역 유람일기를 남겼는데, 모두 전주의 만덕산을 유람한 일을 기록한 것이다. 이기는 전북 김제 출신으로, 조선말기의 실학자이자 애국계몽운동가이다. 만덕산 유람을 기록한 두 편의 일기에 모두 출발지가 나오지 않지만, 전북지역에 거주하였기에 두 차례나 만덕산을 찾았던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역 유람일기는 5편이 발견되었는데, 그중 만덕산 유람을 기록한 것은 이기의 작품뿐이다. 더구나 그는 겨울에 유람길에 나서 겨울 산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때는 평지에 내린 눈이 죽히 석 자가 되었고, 산속은 그 배나 되어 나무들은 굽거나 뽕죽한 부분, 벼랑이나 바위의 모서리가 없어지고, 펼쳐 놓은 듯 넓고 평평하며 깨끗한 수정처럼 눈부서 천리나 되는 먼 거리도 한 자리인 듯 가까워 모두 같은 모양이었다. 바라보면

37) 宋秉璿, <德裕山記>, 『淵齋集』 “行三四里, 到探勝臺. 臺以全石爲體, 出水隆起, 形類穹龜之伏. 方圓奇狀, 如高蹈之士, 獨立不倚, 望之若空中物焉. …… 臺名素稱愁送, 退溪命改, 有詩刻面, 且多古今人題名” ; 국립수목원 편, 앞의 책, 101쪽

끝없이 아득하여 마치 강이나 바다에 배를 띄우고서 벼랑인지 기슭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것과 같아서 이미 전날 본 것과 비교하려고 해도 비교할 수가 없었다.³⁸⁾

위는 1870년 11월에 다시 만덕산을 찾은 일을 기록한 <중유만덕산기>의 일부이다. 나무, 벼랑, 바위 등에 모두 눈이 쌓여 뾰족한 모습이 사라지고, 산 속에 가득 쌓인 눈이 수정처럼 눈부신 풍경이 묘사되어 있다. 등산화, 아이젠 등이 있는 현대에도 겨울산행은 위험한데, 조선시대에 겨울산에 오르는 것은 더욱 어려웠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북지역 유람일기 중 겨울인 음력 10월-12월에 유람한 일을 기록한 것은 이기의 두 일기뿐이다.

김운덕은 19세기 후반에 1편, 20세기 전반에 1편, 총 2편의 전북지역 유람일기를 남겼다. 19세기에 포함시킨 <남원유람기>는 모두 세 차례에 걸쳐 남원에 다녀온 일을 기록한 것이다. 첫 번째인 1898년 봄에는 남원 일대를 유람하였고, 두 번째인 1920년 1월에는 통문을 수보하는 일로 남원을 찾았다. 세 번째인 1921년 12월에는 영정을 고치는 일로 남원을 방문하여, 유람여행을 떠난 때는 1898년이므로 19세기에 포함시켰다.

19세기 전북지역 유람일기로는 12명의 저자가 남긴 16편의 일기가 발견되었다. 많은 일기가 발견된 만큼 유람지역도 다양하여, 남원, 순창, 고창, 진안, 임실, 완주 유람일기가 처음으로 나타났다. 전주지역 유람일기는 기존에도 있었지만 만덕산을 유람한 일을 기록한 일기는 이 시기에 처음 발견되었다. 부안 변산의 경우 19세기에도 5편의 유람일기가 발견되어, 조선후기에도 여전히 명승으로 인정받아 많은 유람객들이 찾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시기 변산 유람일기 중 소승규의 <유봉래산기>는 양적으로도 그 어느 작품보다 풍부하고,³⁹⁾ 한시, 설화 등을 다양하게 담고 있는 의미 있는 작품이다. 소승규는 익산의 선비로, 인근 완주의 선비들과 함께 비교적 가까운 명승지인 변산을 유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38) 李沂, <重遊萬德山記>, 『海鶴遺書』 “於是平地雪深, 足有三尺, 山中倍差, 無荊鉤棘刺崖稜石角, 而敷衍廣平, 明晶眩耀, 千里之遠, 一席之邇, 咸爲一狀. 望之森茫焉, 若泛江海而莫辨崖岸, 已比前日之見則不較矣.” ; 국립수목원 편, 앞의 책, 111-112쪽

39) 소승규의 <유봉래산일기>는 간행본으로 45면을 차지하여 유람일기 중 분량이 많은 편이다. 다른 10편의 변산 유람일기를 살펴보면 가장 적은 것은 2면(박모의 <유변산기>, 박홍현의 <유봉래산기>), 가장 많은 것은 19면(이계서의 <남악기유>, 소진덕의 <봉래유람일기>)을 차지하였다.

4) 20세기

20세기는 한문글쓰기의 마지막 시대라 할 수 있는데, 이 시기의 전북지역 유람일기는 14편이 발견되었다. 1903년의 장수 도성암 유람을 기록한 이정직의 <유도성암기>부터 1969년의 전주 황방산 유람을 기록한 박인규의 <유황방산기>에 이르기까지 12편의 일기는 유람 연도를 알 수 있으며, 유람 시기는 미상이나 20세기로 추정되는 일기는 2편이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7> 20세기 전북지역 유람일기 목록

순번	일기명	출전	저자명	저자 생몰 연도	일기 기간	유람지역
1	유도성암기 (遊道成庵記)	석정집 (石亭集)	이정직 (李定稷)	1841-1910	1903년 6월	장수 도성암
2	봉래유람일기 (蓬萊遊覽日記)	지산유고 (遲山遺稿)	소진덕 (蘇鎭德)	1868-1943	1917년 3월 28일-4월 8일	부안 변산
3	유봉래산기 (遊蓬萊山記)	일심재유고 (一心齋遺稿)	박홍현 (朴弘鉉)	1892-1930	1917년 3월	부안 변산
4	남유록 (南遊錄)	저전유고 (柁田遺稿)	이중림 (李鍾林)	1857-1925	1917년 9월 3일-10일	정읍 내장사
5	등용화산기 (登龍華山記)	양재집 (陽齋集)	권순명 (權純命)	1891-1974	1919년 8월	익산 용화산
6	장사산기 (長沙山記)	울산집 (栗山集)	문창규 (文昌圭)	1869-1961	1919년	고창 장사산
7	관삼인대기 (觀三印臺記)	양재집 (陽齋集)	권순명 (權純命)	1891-1974	1920년 5월	순창 삼인대
8	유대학암기 (遊大學巖記)	양재집 (陽齋集)	권순명 (權純命)	1891-1974	1920년 6월	순창 대학암
9	태인평사유람기 (泰仁平沙遊覽記)	추산유고 (秋山遺稿)	김운덕 (金雲惠)	1857-1936	1925년 윤4월	정읍 평사
10	임산야유기 (林山夜遊記)	취송당유고 (翠松堂遺稿)	한중석 (韓重錫)	1898-1974	1962년 7월 16일	임실 임산
11	유구이호제기 (遊九耳湖堤記)	성당사고 (誠堂私稿)	박인규 (朴仁圭)	1909-1976	1969년 5월 5일	완주 구이호제
12	유황방산기 (遊黃方山記)	성당사고 (誠堂私稿)	박인규 (朴仁圭)	1909-1976	1969년 여름	전주 황방산
13	해상일록 (海上日錄)	울산집 (栗山集)	문창규 (文昌圭)	1869-1961	미상	고창 송림
14	유성암정기 (遊星巖亭記)	직봉유고 (直峯遺稿)	이재두 (李載斗)	1920-1946	미상	정읍 성암정

20세기 전북지역 유람일기를 남긴 저자는 11명, 작품은 14편으로 문창규와 박인규가 각각 2편, 권순명이 3편의 전북지역 유람일기를 남겼다. 문창규의 문집에는 위의 표에 제시된 <장사산기>, <해상일록> 외에도 2편⁴⁰⁾의 일기가 더 수록되어 있으며, 박인규의 문집에는 위의 표에 제시된 <유구이호제기>, <유항방산기> 외에 9편⁴¹⁾의 일기가 더 수록되어 있다.

위 표에 제시된 일기 외에 문창규의 <유영호기>는 유람일기이나, 그 외 문창규와 박인규의 다른 일기들은 유람일기가 아니다. 특히 박인규의 경우 장례일기, 사건일기, 강학일기 등 다양한 내용의 일기가 문집에 수록되어 있다. 일제강점기의 혼란스런 시대였던 20세기 초반, 한문글쓰기가 사라져가던 20세기 중후반에도 자신의 경험을 한문일기로 남겼던 선조들이 있었고, 이러한 선조들의 글이 사라지지 않게 문집으로 간행했던 후손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

권순명의 문집에서는 유람일기인 <등용화산기>, <관삼인대기>, <유대학암기>만을 발견하였다. 그는 전북 정읍 고부 출신으로, 전우(田愚)의 제자이다. 그가 유람한 곳 중 대학암(大學巖)은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 1510~1560)가 순창에 지은 강학당인 훈몽재(訓蒙齋) 근처에 있다. 이곳에는 송강(松江) 정철(鄭澈, 1536~1593)이 ‘대학암(大學巖)’ 세 글자를 새겨 넣었다고 한다. 권순명의 <유대학암기> 첫 부분에도 김인후가 이곳에서 정철에게 대학을 가르쳤다는 언급이 있고, 그들의 자취를 따라간다는 서술이 있다. 훈몽재 터는 문화재로도 지정되어 있는데, 이곳에 대한 유람을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일기라 할 수 있다.

유람 연도를 알 수 있는 20세기 전북지역 유람일기 12편 중 9편은 1903년-1925년의 유람을 기록한 것으로 시기적으로는 20세기 초반에 집중되어 있다.⁴²⁾ 한문글쓰기가 마지막으로 활발했다가 사라져가는 모습을 전북지역 유람일기에서 볼 수가 있다. 1960년대 3편의 전북지역 유람일기가 발견된 것은 변한 시대 속에서도 한문글쓰기를 멈추지 않았던 얼마 되지 않는 마지막 사람들의 흔적이 남은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40) <유영호기(遊嶺湖記)>, <호행일기(湖行日記)>

41) <쇄언(瑣言)>, <을해중추일록(乙亥仲秋日錄)>, <무자중춘일록(戊子仲春日錄)>, <신묘중하일록(辛卯仲夏日錄)>, <옥산집촉록(玉山執燭錄)>, <남양사봉안일록(南陽祠奉安日錄)>, <유도유흥사실록(儒道維興事實錄)>, <노양원경전강연일록(魯陽院經傳講演日錄)>, <한전사실추록(韓田事實追錄)>

42) 호남문집 소재 일기류 자료를 정리한 김미선은 20세기 일기 197편의 연대별 수량을 제시하였는데, 1900년대 48편, 1910년대 42편, 1920년대 36편, 1930년대 32편, 1940년대 9편, 1950년대 2편, 1960년대 7편, 1970년대 3편, 연대 미상 18편으로 20세기 초반에 일기가 집중되어 있다.(김미선, 앞의 책, 139쪽)

내장사의 단풍은 남쪽지역에서 가장 유명하다. 일찍이 한번도 감상을 못하여 묘군과 가기로 약속을 하였으니 바로 정사년(1917) 9월이었다. 3일, 출발하여 이리의 가게에 묵었으니, 기차를 타기 위해서였다. …… 4일, 기차를 타고 정읍에 도착하여 점심을 먹었다. 인력거를 타고 내장산 아래에 이르러, 지팡이를 찾아들고 걸어가 저물녘에 내장사에 이르렀다.⁴³⁾

내장사는 지금도 단풍이 아름다운 곳으로 유명하여, 가을이 되면 단풍을 보러 온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이러한 내장사 유람일기는 20세기에 와서야 처음 발견되는데, 1917년에 이종림이 쓴 <남유록>이 그것이다. 위의 인용 부분은 <남유록>의 첫 부분으로, 내장사가 20세기 초반에도 단풍으로 유명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종림은 익산지역 선비로, 단풍이 절정을 이루는 음력 9월에 내장사로 유람을 떠나며, 위에서 보듯이 기차와 인력거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함을 볼 수 있다. 말과 가마를 이용했던 조선시대와 달라진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다.

여행 첫날인 9월 3일의 일기는 위와 같이 짧으며 생략한 부분에는 그날 쓴 한시 칠언절구 한 편이 수록되어 있다. 9월 4일은 첫부분만 인용한 것으로, 이후 내장사의 역사 등에 대해 서술하며 본인의 시와 동행인의 시도 실려 있다. 이종림은 동행을 ‘묘군(卯君)’이라고 일기에 지속적으로 기록하는데, ‘묘군’은 토끼해에 태어난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정확히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

일제강점기에도 사람들은 유람여행을 떠났다. 그런데 ‘유람’이라고 하여 풍경을 감상하고 일행과 노니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산수 유람은 공부의 수단이기도 하였고, 마음 수양의 방편이기도 하였다.⁴⁴⁾ 더구나 일제시대의 상황 속에서는 더욱 즐기는 것에 초점을 둘 수는 없었을 것이다.

아, 성함과 쇠함, 삶과 죽음의 이치는 이와 같지 아니함이 없으니,

43) 李鍾林, <南遊錄>, 『樗田遺稿』 “內藏寺丹楓, 南州最有名. 曾未一賞, 與卯君約行, 是丁巳九月也. 初三日, 發行止宿裏里店, 將乘汽車. …… 四日, 登車到井邑郡午餉, 因乘人力車, 抵內藏山下, 覓杖徒步, 暮至內藏寺.”

44) 이와 관련 정치영은 『사대부, 산수 유람을 떠나다』(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4, 10쪽)에서 “유교 사상이 지배하였던 조선시대에는 전국의 명산대천을 찾아다니는 유람여행이 성행하였다. ‘만 권의 책을 읽고 만 리 길을 여행한다[讀萬卷書 行萬里路]’는 말이 있듯이 조선시대 사대부들은 산수유람을 중요한 공부 수단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언급하였다.

또 어찌 말로 하리오. 오직 한번 죽어도 세상에 남아 탁월하게 썩지 않는 것은 이름이다. 이름이 드러나면 삶과 죽음은 논할 필요가 없다. 비록 그러하나 그 실체가 없이 이름에만 급급하면 이것 또한 우리의 무리가 아니다. 이 산에 오른 자가 산의 중후함을 보고 체(體)로 삼고, 바다의 광활함을 보고 용(用)으로 삼는다면, 그 반드시 거지 썩지 않는 자가 될 것이니, 오늘의 유람은 진실로 후인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지 않을 것이라 할 수 있도다.⁴⁵⁾

위는 1917년의 변산 유람을 기록한 박홍현 <유봉래산기>의 마지막 부분이다. 변산 유람을 하면서 이곳에 다녀갔던 사람들을 생각하며, 삶과 죽음의 이치, 이름을 남긴다는 것이 갖는 의미 등을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변산이라는 산, 변산에서 보게 되는 바다를 통해 중후함[重]과 광활함[濶]을 체득하여 썩지 않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여, 자신이 유람을 통해 얻게 되는 것을 말하면서 글을 끝맺고 있다. 그의 유람이 공부와 수양에 도움이 되는 행위로 읽히고 있다.

20세기 14편의 전북지역 유람일기를 살펴보면 부안의 변산 유람을 기록한 2편의 작품 외에는 지역이 다 다르다. 유람지역은 장수 도성암, 정읍 내장사, 익산 용화산, 고창 장사산, 순창 삼인대, 순창 대학암, 정읍 평사, 임실 임산, 완주 구이호제, 전주 황방산, 고창 송림, 정읍 성암정으로, 고창지역 2편, 순창지역 2편, 정읍지역 3편의 유람일기 외에는 시군도 모두 다르다. 더구나 변산 외에는 기존에 유람일기가 발견되지 않았던 곳으로, 전북지역 유람일기의 공간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20세기에 전북지역 유람일기를 남긴 11명의 저자는 모두 전남, 전북에 거주했던 호남 사람이다. 이전에 전북지역 유람일기를 남긴 저자 중 관직 등으로 인해 전북에 잠시 머물렀던 사람도 있는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그들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을 유람했기 때문에, 전북지역 곳곳이 세부적인 유람지역에 포함되었고, 전북지역 유람일기의 공간이 확대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45) 朴弘鉉, <遊蓬萊山記>, 『一心齋遺稿』 “嗟, 夫盛衰生死之理, 未嘗不如是, 亦豈足道哉. 惟其一死, 則留於世而卓然其不朽者名矣. 名其著矣, 則生死不必論矣. 雖然無其實而汲汲於名者, 亦非吾徒也. 登此山者, 見山之厚而以爲體, 覽海之濶而以爲用, 則其必庶幾乎其不朽者, 而今日之登臨, 信不爲後人之所侮也云爾.”

4. 전북지역 유람일기의 활용 가치

전북지역 유람일기를 조사한 결과 40편의 작품을 확인하였다. 전북지역 14개 시군 중 13개 시군에 대한 유람일기를 확인하였으며, 12세기 말부터 20세기 후반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전북지역을 유람하고 일기를 남겼음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북지역 유람일기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첫째, 전북지역 유람일기는 전북학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일기라는 장르의 특성상 유람일기에는 자신의 유람경험이 생생하게 표현되며, 분량과 형식이 비교적 자유로워 유람여행 중 작성한 한시나 대화를 통해 듣게 된 설화 등도 쉽게 작품 속에 삽입된다. 전북지역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유람일기에는 유람 당시 전북의 모습이 담겨 있다. 또한 사람들이 자주 찾은 전북의 명승이 어디인지, 여행 경로는 어떠한지, 당시의 지명은 무엇인지, 유람지역과 관련한 설화에 무엇이 있는지 등도 볼 수가 있다.

그동안 강원도의 금강산·청평산,⁴⁶⁾ 경상도의 주왕산·지리산·청량산,⁴⁷⁾ 광주의 무등산,⁴⁸⁾ 충청도의 계룡산·속리산,⁴⁹⁾ 함경도의 백두산,⁵⁰⁾ 전라남도의 월출산,⁵¹⁾ 제주도의 한라산⁵²⁾ 등에 대한 유람을 기록한 작품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
- 46) 김용곤 외 역, 1998, 『조선시대 선비들의 금강산 답사기』, 해안 ; 경상대 경남문화연구원 편, 2016-2019, 『금강산유람록』1-9, 민속원 ; 권혁진, 2011, 『淸平山 遊山記 연구』, 『인문과학연구』29, 강원대 인문과학연구소 등.
- 47) 박영호·김우동 역, 2013-2014, 『국역 주왕산유람록』I·II, 청송군 ; 박영호, 2017, 『周王山 遊覽錄의 현황과 특징』, 『동방한문학』71, 동방한문학회 ; 최석기 외 역, 2007, 『선인들의 지리산 유람록』, 돌베개 ; 최석기 외 역, 2008, 『지리산 유람록-용이 머리를 숙인 듯 꼬리를 치켜든 듯』, 보고서 ; 최석기 외 역, 2009-2013, 『선인들의 지리산 유람록』3-6, 보고서 ; 강정화 외, 2016, 『지리산 유람록의 이해』, 보고서 ; 강정화·황의열 편, 2016, 『지리산권 유산기 선집』, 도서출판 선인 ; 정지아, 2016, 『淸涼山 遊山錄과 智異山 遊山錄 比較 研究』, 경북대 박사학위논문 ; 청량산박물관 편역, 2007-2012, 『옛 선비들의 청량산 유람록』I-III, 민속원 등.
- 48) 김대현, 1998, 『無等山 遊山記에 대한 研究』, 『남경 박준규박사 정년기념논총』, 남경 박준규박사 정년기념논총 간행위원회 ; 김대현 외, 2010, 『국역 無等山遊山記』, 광주시립민속박물관 ; 김순영, 2013, 『무등산 유산기 연구』, 전남대 석사학위논문 등.
- 49) 강현경, 2003, 『鷄籠山 遊記에 대한 研究』, 『한국한문학연구』31, 한국한문학회 ; 이길구, 2016, 『鷄籠山 遊記의 研究-콘텐츠 活用方案 摸索을 檢하여』, 충남대 박사학위논문 ; 김용남, 2005, 『조선후기 俗離山遊記에 나타난 산수관』, 『개신어문연구』23, 개신어문학회 ; 김용남, 2009, 『옛 선비들의 속리산기행』, 국학자료원 등.
- 50) 이상태 외 역, 1998, 『조선시대 선비들의 백두산 답사기』, 해안 ; 김민정, 2006, 『18-19세기의 백두산 기행로 및 기행 양식』, 성신여대 석사학위논문 ; 손혜리, 2008, 『조선 후기 문인들의 백두산 유람과 기록에 대하여』, 『민족문화사연구』37, 민족문화사학회 등.
- 51) 사경화, 2019, 『조선시대 月出山 遊山記의 개괄적 검토』, 『한문고전연구』38, 한국한문고전학회.

조사 및 연구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1장에서 언급했듯이 전북지역 산이나 명승에 대한 유람을 기록한 작품에 대한 조사 및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본 조사 결과 파악한 전북지역 유람일기는 40편에 이른다. 이러한 자료는 전북의 명승, 전북의 여행사, 전북의 지명, 전북의 설화, 전북의 기행문학 등 전북학 연구의 기초자료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전북지역 유람일기는 전북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현대에는 관광산업이 크게 발달해 있다. 경제적으로 예전에 비해 여유가 있고, 도로와 교통기관이 발달해 있으며, 삶의 질과 여유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요인이 결합하여 여행이 크게 활성화되어 있는 시대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각 지자체들은 해당 지역에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역 축제가 활성화되었고, 박물관·문학관 등의 건립도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 과거의 전북지역 유람여행을 볼 수 있는 일기는 이야기를 더해 주어 관광콘텐츠를 풍부하게 해 줄 것이다.

유람일기 속에 자세히 담겨 있는 선조들의 여행 경로는 여행 코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고, 선조들의 유람을 담은 일기 자체가 박물관·문학관의 주요 전시 자료가 될 수 있으며, 선조들이 여행 중 겪었던 일화들은 애니메이션 등으로 만들어져 여행 온 아이들의 흥미를 북돋을 수 있을 것이다.

전북지역 유람일기 속 유람지역은 고창 선운산·장사산, 남원 대북암, 군산 천방사 터, 무주 덕유산, 부안 변산, 순창 대학암·백암산·삼인대, 완주 위봉산성, 익산 용화산, 임실 용암산, 장수 도성암, 전주 만덕산·황방산, 정읍 내장사·성암정 등 다양하다. 그렇기 때문에 전북의 다양한 지역별 관광 상품 개발 및 관광콘텐츠 개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전북지역 유람일기는 전북지역 여행문화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유람일기는 대학의 국어국문학과, 국어교육과에서 기행문학을 교육할 때, 사학과, 지리학과에서 선조들의 여행문화와 여행경로, 여행지 등을 교육할 때, 문화콘텐츠학과에서 여행관련 콘텐츠를 교육할 때 활용할 수 있다. 대학교뿐만 아니라 초·중·고등학교의 정규교육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교양강좌에서 여행문화를 교육할 때도 주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전북지역 학생이나 일반인들에게 여행문화를 교육할 때는 자신이 살고

52) 윤미란, 2008, 『조선시대 한라산 遊記 연구』,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오규, 2015, 『한라산 山水遊記의 산수문학적 연구』, 『퇴계학논총』26, 사단법인 퇴계학부 산연구원 등.

있는 지역의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가본 적이 없고 어디인지도 모르는 곳보다, 자신이 가본 곳, 자신이 잘 알고 있는 곳에 대한 선조들의 여행 역사를 가르쳐주면 쉽게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전라북도 전주에 위치한 전북대학교, 전라북도와 비교적 가까운 지역에 위치한 전남대학교의 교양과목을 살펴보면, 2019년 2학기에 전북대학교에는 ‘문화와관광’, ‘문화사의이해’라는 과목이,⁵³⁾ 전남대학교에는 ‘여행과역사’, ‘여행의세계’라는 과목이⁵⁴⁾ 개설되어 있다. 이러한 과목에서 전북지역 유람일기를 활용하여 수업한다면, 전북지역 여행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최근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에 ‘호남학과’가 개설되었는데, 대학원 교육과정에서도 주요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5. 맺음말

필자는 전북지역 유람일기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시행하여 40편의 작품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지역별, 시기별로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그 활용 가치를 정리하고자 하였다.

먼저 2장에서는 전북지역 유람일기의 지역별 분포를 정리하였다. 전북지역 14개 시군 중 13개 시군에 대한 유람일기를 확인하였으며, 부안이 13편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후 전주 5편, 고창, 무주, 순창, 정읍 각 3편, 남원, 완주, 임실 각 2편, 군산, 익산, 장수, 진안 각 1편으로 유람일기가 많진 않지만 여러 지역에서 고르게 발견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람한 세부 지역을 살펴보면 변산(11편), 덕유산(3편), 만덕산(2편) 등 산을 유람한 것이 가장 많아, 40편의 유람일기 중 24편이 산을 유람한 일을 기록한 것이었다.

3장에서는 전북지역 유람일기의 시기별 현황을 살펴보았다. 전북지역 유람일기는 1199년-1200년에 전주 일대를 유람한 일을 기록한 이규보의 <남행월일기>부터 1969년 여름에 전주 황방산을 유람한 일을 기록한 박인규의 <유황방산기>에 이르기까지 약 800년 가까이 작품이 발견되었다. 세기별 수량은 12세기 1편, 16세기 1편, 17세기 2편, 18세기 6편, 19세기 16편, 20세기 14편이다.

유람여행이 성행한 조선후기의 상황 속에서 전북지역 유람일기도 많아졌으

53) 전북대 수강신청시스템(<http://all.jbnu.ac.kr/jbnu/sugang/>) 참조.

54) 전남대 포털(<https://portal.jnu.ac.kr/>) 참조.

며, 한 사람이 여러 편의 작품을 남긴 경우도 발견되었다. 18세기 강세황, 김수민, 19세기 이기, 19-20세기 김운덕, 20세기 문창규, 박인규가 각각 2편씩의 전북지역 유람일기를 남겼다. 20세기 권순명은 3편을 남겼으며, 19세기 송병선의 전북지역 유람일기는 4편에 이르렀다. 또한 작품 수가 늘어난 것에 비례하여 여행지역도 다양화되었으며, 한문일기가 사라져가는 20세기에는 전북의 가장 다양한 지역 유람일기를 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전북지역 유람일기의 활용 가치를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전북학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둘째, 전북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셋째, 전북지역 여행문화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전북지역 유람일기를 최대한 조사하였지만, 발견하지 못한 것도 많을 것이다. 또 전북지역 유람일기 조사와 현황 파악 등에 주목하여 개별 작품들과 저자들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는 진행하지 못하였다. 전북지역 유람일기의 현황조차 알 수 없었던 상황에서, 부족하지만 전북지역 유람일기의 대략적인 현황과 특징은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유람일기 개별 작품에 대한 연구, 전북지역을 여행한 사람들에 대한 연구, 유람일기를 바탕으로 한 관광코스 개발 연구 등은 추후 과제로 남겨 둔다. 앞으로 전북지역 유람일기에 관심이 증대되고, 강학일기, 관직일기, 생활일기, 장례일기 등 유람일기 외 다양한 전북지역 일기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기본자료

- 姜世晃, <遊格浦記>, 『豹菴遺稿』(지식산업사, 2010)
- 姜世晃, <遊禹金巖記>, 『豹菴遺稿』(지식산업사, 2010)
- 權純命, <觀三印臺記>, 『陽齋集』(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 權純命, <登龍華山記>, 『陽齋集』(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 權純命, <遊大學巖記>, 『陽齋集』(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 權攄, <遊千房寺址記>, 『震溟集』(『韓國歷代山水遊記聚編』 9, 민창문화사, 1996)
- 權埰, <遊德裕山錄>, 『龍耳窩集』(한국고전종합DB 수록본)
- 金壽民, <遊邊山錄>, 『明隱集』(『韓國歷代山水遊記聚編』 9, 민창문화사, 1996)
- 金壽民, <遊夕陽山記>, 『明隱集』(『韓國歷代山水遊記聚編』 9, 민창문화사, 1996)
- 金雲惠, <南原遊覽記>, 『秋山遺稿』(전남대 중앙도서관 소장본)
- 金雲惠, <泰仁平沙遊覽記>, 『秋山遺稿』(전남대 중앙도서관 소장본)
- 李奎報, <南行月日記>, 『東國李相國集』(한국고전종합DB 수록본)
- 林薰, <登德裕山香積峰記>, 『葛川集』(한국고전종합DB 수록본)
- 文昌圭, <長沙山記>, 『栗山集』(울산집간행위원회, 1995)
- 文昌圭, <海上日錄>, 『栗山集』(울산집간행위원회, 1995)
- 朴模, <遊邊山記>, 『蘆河集』(전남대 중앙도서관 소장본)
- 朴文鎬, <漫遊記>, 『壺山集』(『韓國歷代山水遊記聚編』 9, 민창문화사, 1996)
- 朴仁圭, <遊九耳湖堤記>, 『誠堂私稿』(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 朴仁圭, <遊黃方山記>, 『誠堂私稿』(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 朴齊望, <遊邊山日記>, 『水月私稿』(호남지방문화연구원 소장본)
- 朴弘鉉, <遊蓬萊山記>, 『一心齋遺稿』(『寒泉世稿』, 전남대출판부, 1994)
- 蘇昇奎, <遊蓬萊山日記>, 『蘭谷遺稿』(국학진흥원 일기류DB 수록본)
- 蘇鎭德, <蓬萊遊覽日記>, 『遲山遺稿』(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 宋秉璿, <德裕山記>, 『淵齋集』(한국고전종합DB 수록본)
- 宋秉璿, <兜率山記>, 『淵齋集』(한국고전종합DB 수록본)
- 宋秉璿, <白巖山記>, 『淵齋集』(한국고전종합DB 수록본)

- 宋秉璫, <邊山記>, 『淵齋集』(한국고전종합DB 수록본)
- 宋殷成, <遊龍巖山記>, 『白下集』(『韓國歷代山水遊記聚編』 9, 민창문화사, 1996)
- 李溪墅, <南嶽紀遊>, 『溪墅稿』(『韓山世稿』,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 李沂, <遊萬德山記>, 『海鶴遺書』(한국고전종합DB 수록본)
- 李沂, <重遊萬德山記>, 『海鶴遺書』(한국고전종합DB 수록본)
- 李基敬, <邊山東遊日錄>, 『木山藁』(세원사, 1990)
- 李世瑗, <遊邊山記>, 『果齋集』(『韓國歷代山水遊記聚編』 9, 민창문화사, 1996)
- 李載斗, <遊星巖亭記>, 『直峯遺稿』(『韓國歷代山水遊記聚編』 9, 민창문화사, 1996)
- 李定稷, <遊道成庵記>, 『石亭集』(『韓國歷代山水遊記聚編』 9, 민창문화사, 1996)
- 李鍾林, <南遊錄>, 『栲田遺稿』(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 李昌新, <遊威鳳山城記>, 『槐亭集』(『韓國歷代山水遊記聚編』 9, 민창문화사, 1996)
- 沈光世, <遊邊山錄>, 『休翁集』(한국고전종합DB 수록본)
- 鄭熙鎮, <遊福庵記>, 『愼晦遺稿』(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 韓重錫, <林山夜遊記>, 『翠松堂遺稿』(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단행본

- 강세황 저·김종진 외 역, 『표암유고』, 지식산업사, 2010.
- 건국대 사학과 편, 『역사와 이야기가 있는 답사기행2-전라북도 편』, 새문사, 2013.
- 고연희, 『조선후기 산수기행예술 연구』, 일지사, 2007.
- 국립수목원 편, 『산림역사 자료 연구총서3 경상남도-산림정책과 산림문화 역사성 규명을 위한 국역 유산기』, 한국학술정보, 2014.
- 국립수목원 편, 『산림역사 자료 연구총서5 충청도, 전라도-산림정책과 산림문화 역사성 규명을 위한 국역 유산기』, 한국학술정보, 2016.
- 국학진흥연구사업추진위원회 편, 『臥遊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 김미선, 『호남문집 소재 일기류 자료』, 경인문화사, 2018.
- 김택술, 『後滄集』, 여강출판사, 1988.
- 문창규, 『栗山集』, 울산집간행위원회, 1995.
- 박홍현, 『一心齋遺稿』(『寒泉世稿』 내), 전남대출판부, 1994.
- 심경호, 『산문기행-조선의 선비, 산길을 가다』, 이가서, 2007.

- 이규보 저/김상훈·류희정 역, 『조물주에게 묻노라』, 보리, 2005.
- 이기경, 『木山藁』, 세원사, 1990.
- 전송열·허경진 편역, 『조선 선비의 산수기행』, 들베개, 2016.
- 정민 편, 『韓國歷代山水遊記聚編』 1-10, 민창문화사, 1996.
- 정치영, 『사대부, 산수 유람을 떠나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4.
- 한상철, 『명승보(名勝譜)』, 수서원, 2017.
- 황위주, 『조선시대 일기자료의 현황과 활용방안』, 『국역 조선시대 서원일기』, 한국국학진흥원, 2007.

논문

- 경일남, 「<南行月日記>의 隨筆的 特性」, 『한국언어문학』 29, 1991, 217-231쪽.
- 김경미, 「조선후기 변산반도 유람록의 관광학적 고찰-소승규 유봉래산일기를 중심으로」, 『Tourism Research』 43, 2018, 1-26쪽.
- 김대현·김미선, 「호남지방 일기자료 연구의 현황과 과제」, 『호남문화연구』 58, 2015, 41-72쪽.
- 김미선, 「섬 여행을 기록한 조선시대 기행일기」, 『도서문화』 53, 2019, 33-64쪽.
- 김미선, 「조선시대 기행일기 속 여행 목적」, 『국어문학』 71, 2019, 151-182쪽.
- 김미선, 「조선시대 한문 기행일기의 현황과 가치」, 『한국민족문화』 71, 2019, 3-36쪽.
- 김순영, 「연재 송병선의 호남 지역 名山 인식에 대한 연구: 『연재집』 소재 호남 유산기 작품을 중심으로」, 『어문논총』 31, 2017.
- 김순영, 「호남 유산기의 자료적 특징과 의의」, 『국학연구론총』 13, 2014, 187-210쪽.
- 변영섭, 「豹菴 姜世晁의 <禹金巖圖>와 「遊禹金巖記」」, 『미술자료』 78, 2009, 23-60쪽.
- 이병찬, 「연재 송병선의 유기문학 연구」, 『어문연구』 68, 2011, 333-363쪽.
- 이상균, 「朝鮮時代 遊覽文化 研究」,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 조법중, 「이규보의 <南行月日記>에 나타난 고대사 사료검토-普德, 元曉, 眞表 관련 기록을 중심으로」, 『한국인물사연구』 13, 2010, 267-305쪽.
- 최은주, 「조선 시대 일기 자료의 실상과 가치」, 『대동한문학』 30, 2009, 5-40쪽.

기타자료

- 국립중앙도서관(<http://www.nl.go.kr/>) 검색일 : 2019. 10. 10.
국학진흥원 일기류DB(<http://diary.ugyo.net/>) 검색일 : 2019. 10. 25.
두디피아(<http://www.doopedia.co.kr/>) 검색일 : 2019. 9. 25.
미디어한국학(<http://www.mkstudy.com/>) 검색일 : 2019. 9. 30.
전남대 포털(<https://portal.jnu.ac.kr/>) 검색일 : 2019. 10. 27.
전북대 수강신청시스템(<http://all.jbnu.ac.kr/jbnu/sugang/>) 검색일 : 2019. 10. 27.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 검색일 : 2019. 10. 25.
호남기록문화유산(<http://memoryhonam.co.kr/>) 검색일 : 2019. 10. 25.

<Abstract>

Status and Utilization of Jeonbuk Region Travelogues

Kim, Mi-Sun*

This paper examines 40 Jeonbuk travelogues by area and time, as well as their utilization value. First, Chapter 2 presents an arrangement of Jeonbuk region (Jeonbuk) travelogues by area. 13 travelogues were written about Buan, offering overwhelmingly the largest number; 5 about Jeonju; 3 each about Gochang, Muju, Sunchang, and Jeongeup; 2 each about Namwon, Wanju and Imsil; and 1 each about Gunsan, Iksan, Jangsu and Jinan. As such, travelogues were written about various areas, although the number is large. By detailed area, travelogues were written about Byeonsan (11 pieces), Deokyusan (3 pieces), Mandeoksan (2 pieces), etc., so travelogues about mountains stand at 24, the largest category of 40 travelogues.

Chapter 3 examines Jeonbuk travelogues by time. Jeonbuk travelogues are found to have been written for nearly 800 years from <Namhaengwolilgi> by Yi Gyu-bo (1199-1200) to <Yuhwangbansangi> by Park In-gyu (1969). By century, the quantity stands at 1 in the 12th century; 1 in the 16th century; 2 in the 17th century; 6 in the 18th century; 16 at 19th century; and 14 in the 20th century.

In the second half period of Joseon when travels were popular, Jeonbuk travelogues were written greatly, and even one author was found to have written several travelogues, which have survived to present day. Gang Se-hwang and Kim Su-min each wrote 2 works in the 18th century; Yi Gi in the 19th century, Kim Woon-duk in the 19th and 20th century, Mun Chang-gyu and Park In-gyu in the 20th century each wrote 2 works; Gwon Sun-myeong wrote 3 works in the 20th century; and Song Byeong-seon wrote 4 works in the 19th century. And, as the number of works increased, the areas of travel were diversified; travelogues about the most various areas in Jeonbuk were written in the 20th century.

Lastly, Chapter 4 defines three values of utilizing Jeonbuk travelogues. First,

* research professor, institute of humanitie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ey can be used as the basic material for Jeonbuk studies. Second, they can be used as material for promoting Jeonbuk tourism. Third, they can be used as educational and cultural data for Jeonbuk travel.

Key Words : Jeonbuk region (Jeonbuk), travelogue, Buan, Jeonju, Byeonsan, Deokyusan, Yi Gyu-bo, Song Byeong-seon, Park In-gyu

